

‘금남로의 촛불’ 다시 켜진다

촛불혁명 1주년 기념 5·18 진상규명·통일 기원 행사

23~25일 토론회·사진전 등 다채...28일 광주시민대회

오는 2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1주년 되는 날이다.

올 봄까지 이어진 촛불행렬은 정권 교체에 원동력이 됐고, 대한민국은 현재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촛불혁명 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5·18 진상규명, 통일, 평화를 기원하는 촛불이 다시 켜진다.

‘촛불혁명 1주년 광주시민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3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간을 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금

남에서 사진전, 토론회, 시민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 60여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성과를 되짚고 개헌 등 향후 과제와 시민들의 역할을 찾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촛불혁명 1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24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는 토론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헌법상 기본권 조항의 개정 과제’를 발표하고 언론·노동·여성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한 교수는 “촛불집회는 지도세력이 존재했던 지난 1987년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면서 “2008년 광주병 촛불집회와 더불어 우리 헌정사 조유의 자연발생적, 비조직적 시민행동·시민정치운동”으로 규정했다.

또 “촛불항쟁은 정권을 교체시켰지만 4·19혁명이나 1987년 6월항쟁처럼 결국 국민은 빠진 채 정치 엘리트에 의한 개헌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가권력과 국민들이 서로 보완하면서 견제하는 일종의 사회복지국가적 타협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행사인 ‘촛불혁명 1주년 광주시민대

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금남로 일대에서 1년 전 촛불집회를 재현한다. 5·18진상규명특별법 조속 통과·언론 정상화 촉구 등 각종 서명운동을 비롯해 트럼프 다투, 평화소원 팔찌 만들기, 평화산책 등 반전·평화를 기원하는 체험행사로 구성된다. 집일빌딩 앞 주무대에서는 자유발언대, 전단 퍼포먼스, 축하공연, 대동놀이 등 각종 불거리를 선보이며 곳곳에서는 벽돌사방치기, 딱지제왕, 길놀이·사물놀이 등 길거리도 가득하다. 양초는 오후 4시부터 배포된다.

행사가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에서는 촛불집회 경과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진전 ‘내가 촛불의 주인공’이 이어진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올해도 대풍이로구나~ 22일 광주시 북구 용전마을 들녘에서 열린 ‘용전 들노래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용전 들노래 보존회원들이 들노래를 재현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금속 노출 여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세월호 수색 사실상 마무리

광주 초교·유치원 13곳 등 전국 1796곳 초과 검출

광주지역 초등학교 교실과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3곳에서 중금속 등이 초과(기준치)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국민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결과, 전국 시설 1796곳이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별로 전북이 41곳(4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 13곳, 경기 12곳, 강원 9곳, 울산 7곳 등의 순이다.

부산·전남은 각각 2곳, 서울·대전·충

남·경남은 각각 1곳이었다. 광주는 초등학교(8곳)·유치원(4곳)·특수학교(1곳)이며 전남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각각 1곳이다.

이중 90곳은 지난해 말까지 해당 기관으로부터 시설 개선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9곳은 도로나 마감재가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으며 1곳은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유치원 교실·특수학교 교실 등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7일 선체 직립 결정

세월호 선체수색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세월호 선체 중 화물구역은 차량 184대와 철근 364.3t이 전부 반출되는 등 수색 작업이 사실상 끝났으며, 객실 수색도 마무리 단계다.

기관실 수색작업 경우 현재 60% 정도가 완료돼 추가로 기관실 옆에 있는 발전실과 보조발전실 정도만이 남은 수색 공간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선체수색의 종료 시점은 오는 27일로 알려졌다.

세월호 침몰해역에서 진행했던 3차 수중수색 역시 작업이 끝나치고 현재 현장

에 설치된 펜스 철거가 진행중이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는 지난 20일 목포신항 세월호 선조위 목포사무소 중회의실에서 제10차 전일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지난 7월7일부터 내년 1월6일인 선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5월6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김창중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위원들 사이에서 최소 66억이 소요되고 작업시간만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세월호 선체 직립에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오는 27일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45 해질 17:48 | 달출 09:36 달짐 20:16

천고마비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10/20	보성	맑음	7/18
목포	맑음	9/19	순천	맑음	10/20
여수	맑음	12/18	영광	맑음	9/18
나주	맑음	9/19	진도	맑음	11/20
완도	맑음	11/19	전주	맑음	9/18
구례	맑음	7/19	군산	맑음	9/18
강진	맑음	9/20	남원	맑음	8/18
해남	맑음	9/20	축산도	맑음	13/16
장성	맑음	8/18			

◇비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1.0~2.5	북~북동	0.5~1.0
남부	면바다	북~북동	1.0~3.0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동~동	1.0~3.0	북동~동	1.0~2.0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3.0~5.0	북동~동	2.0~3.0
서부	면바다(서)	북~북동	3.0~4.0	북~북동	1.5~3.0

◇생활지수

☀	관심
☀	식중독
☀	보통
☀	자외선
☀	낮음
☀	파부질현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07	03:56
	21:36	16:31
여수	04:21	10:56
	16:58	22:53

◇주간 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	☀	☀	☀	☀	☀	☀
9/20	8/20	9/20	10/22	9/22	9/21	10/21

“전남대병원 전공의 부족, 간호사로 땀질”

국정감사...노용래 “불법의료”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부족한 전공의 230명을 대신해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용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남대병원 PA(Physician Assistant) 인력은 63명이다. PA는 부족한 전공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는 진료지원 인력을 말한다.

전공의 모집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부족한 인력을 PA에 의존하고 있으며 PA 대부분은 주로 간호사들이므로 나타났다.

이들 PA가 법적으로 허용된 행정업무 외에도 수술실 보조, 시술, 처방까지 하고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근본적인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료 공백을 PA로 땀질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PA 실태조사와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해양대 총장에 박성현 교수

교육부는 최근 목포해양대학교 제7대 총장에 박성현(52·향해정보시스템공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지난 5월 총장임용 후보자로 박 교수를 1순위로 선정,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이후 대통령 선거와 교육부장관 임명 등으로 총장 임용이 지연되면서 약 5개월 여만에 총장이 임명됐다.

목포해양대학교는 총장 임명으로 총장 공석 장기화로 차질을 빚었던 각종 사업 추진과 학사행정 등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총장은 광양 출신으로 순천고,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 동 대학 석사, 일본 규슈대학 박사를 거쳐 2000년에 목포해양대학교에 부임했다.

산학협력담당, 교무처장, 전남도정평가위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청렴 옴부즈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roma Life
www.aroma-life.co.kr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별단면속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한 속옷입니다.

대표전화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 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명회 1등

비비드 아모르

러닝+팬츠
2단 일체형 남성용 슈트